

제2336호 2018.12.16.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강론

일상을 나누다

〈결핵 복지, 나환우 복지, 노인 복지, 도시빈민 복지, 아동 복지, 여성 복지, 국내 이주민 복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복지, 종합 복지〉 우리 교구가 활동하고 있는 복지 분야입니다. 많죠?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 교구가 운영하거나, 우리 교구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후원자들이 묻습니다. “이런 시설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나라에서 짓고 교구가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나라에서 운영비를 다 주겠네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라에서 운영비를 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우려고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시는 은인들을 찾고, 복지 대상자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도 품질과 가격을 따져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사람인데, 돌아오는 대가 없이 후원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후원이라는 것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느님 사랑과 닮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마태 6,3)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사회복지국’에서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본당에서 ‘CMS 후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고맙게도 400여 분이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 170여 분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감사 인사를 전하지도 못하였지만, 뭉근하게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에 후원하시는 돈은, 후원받기 어려운 작은 시설들에 우선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에게, 이런 것도 도와줘?” 할만 한 생활 시설 도배, 장판 깔기, 그룹 홈 여름 숙박 나누기,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치킨, 피자 간식...

‘후원바랍니다.’ 말하기 조금 거시기한 것들을 사회복지국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것을 나누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 평범한 날에 평범한 것을 평범한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나누는(봉사 시간, 기도, 돈, 심지어 작은 미소까지) 모든 분들이 주님 은총 듬뿍 받도록 기도드리는 자선 주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도움 주실 분은 교구 사회복지국 : 055)249-7042, 계좌 : 경남, 504-07-0096069. 마산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일 진례

3면 신앙대학 졸업미사

제1독서

스바 3,14-18ㄱ

화답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2독서

필리 4,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표징 7 - 성찬, 그리고 사제

TV 프로그램 촬영장에서 만난 그녀는 거침없는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다. “요새는 얼굴 좀 뽀뽀하고 모양만 잘 내면 셰프가 되는 줄 아나 본데 도대체 다들 틀러먹었지예.” 그러고 보니 그녀의 또 다른 별명이 생각났다. ‘단디 셰프’다. 몇 년 전 우리나라 방송에서 김 씨(요리사 김소희)는 분칠을 하고 나타난 요리사 지망생에게 “얼굴에 뽀끼칠 하지 말고 이거나 단디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물론 음식이었다.

“요리사는 잔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예. 이젠 지독한 노동인기라. 나는 요새도 매일 17시간 18시간씩 주방에 붙어 서서 일합니다. 남들은 내보고 팔뚝에 근육 붙었다고 멋지다고 언제 운동했냐 카던데, 내는 운동 평생 해본 적이 없어예. 할 시간이 어딴습니까. 이젠 다 죽어라 하루종일 프라이팬 흔들어서 생긴 근육이고예. 요리는 그래 하는 겁니다.”

많은 표징들 가운데서도 최후에 나타난 표징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히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 표징, 성서신학사전

“성찬”은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죽음이 성취한 속죄의 영원한 가치를 부여한 결정적 행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느님께 당신과 모든 피조물을 봉헌하셨고, 또 이 봉헌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진수인 것이다.

- 성찬, 성서신학사전

무대의상을 입고 낭랑한 목소리로 경문을 읽어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입고, 치열하게 살아간 내 삶을 봉헌해 생명의 음식을 빚어내는 것이 성찬이고, 그렇게 하는 이가 사제입니다.

●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회간지 발간 기념 감사미사

소식



교구 가톨릭 문인회(담당 : 주용민 리노 신부, 회장 : 우무석 스테파노)는 12월 8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가톨릭문학 제20집 『은총과 소명』출판기념 감사미사, 제12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미사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으며, 회원

과 신인상 수상자 가족 40여 명이 함께하였다. 배 주교는 신인상 수상자 소설 부문 당선 고광주 에스더(상남동본당), 수필 부문 당선 김정권 시몬(남성동본당), 시 부문 가작 김용철 스테파노(덕산동본당)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였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구 전례꽃꽂이회 전시회

교구 전례꽃꽂이회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교구 내 23개 본당에서 24개 작품을 준비하여 전시하였으며, 총대리 박창균 시메온 신부의 전시회 시작 예식 주례로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교구 성소국(국장 : 정연동 세바스찬 신부)은 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기쁨과 감동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 신앙대학 제24회 졸업미사

소식 



신앙대학 제24회 졸업미사가 12월 2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졸업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 2년간 신앙의 진리를 배워나가고자 애쓴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신앙의 흔적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진리 안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당부하였다. 신앙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한 24기 43명의 졸업자에게는 졸업장과 함께 교리교사자격증(37명), 개근상(22명), 성적우수상(3명), 동창회장상(6명)이 수여되었다. 사목국에서는 제26기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 신부의 추천을 받은 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 교구 꾸르실료 간사 총회

교구 꾸르실료(담당 : 이청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주간 : 김경순 스테파니아)는 12월 1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올뜨레야 간사 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29개 본당 80여 명의 간사 및 임원이 참석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9년 교구 꾸르실료 도입 50주년과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한 본당에 대한 최우수본당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였다.



- ▶ 올뜨레야 최우수본당 - 삼계본당(간사 : 박타훈 요셉), 명서동본당(간사 : 박종석 유스티노)
- ▶ 올뜨레야 우수본당(지구별) - 마산지구 칠원본당(간사 : 김능숙 모니카), 창원지구 대방동본당(간사 : 박성률 이시도르), 거제지구 하청본당(간사 : 김채석 베네딕토)
- ▶ 올뜨레야 격려상 - 사천본당(간사 : 유현식 라파엘)

● 교구 레지아 활동 계획 발표회



교구 레지아(담당 :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 강동주 요한)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2019년도 교구 레지아 활동 계획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교구 레지아 산하 19개 Co. 94개 Cu. 간부 318명이 참석하였으며, 교구 레지아는 2019년 한 해를 교구장의 사목방침과 담당 사제의 사목지침을 관통하는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레지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발표회는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으며, 더불어 2018년 최우수평의회 시상식이 있었다.

- ▶ 최우수평의회 - '덕산 천주의 모친 Co.' ▶ 우수평의회 - 창원 2Co. '천상은총의 모후' / 마산 1Co. 직속 회원 2Cu. '다윗의 탑'
- ▶ 특별상 - 양덕 2Cu. 직속 '다윗의 탑 소년 Pr.'

2018년 제35회 자선 주일(12월 16일)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라”(루카 14,13)

자선의 첫걸음은 '공감'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욱 보잘것없는, 마치 죄인과 같은 처지로 오셨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춘 주교

※ 자선 주일 담화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확인 바랍니다.

CBCK 

“성직자 병, 셋”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검은 옷, 수단soutane : 성직자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통치마 같은 긴 옷을 말합니다. 본당 신부님들께서 입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수단은 중세 때에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단이란 말의 뜻은 “밑에까지 내려오는 옷”이란 뜻의 프랑스어(soutan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수단의 색깔이 검은색인 것은, 하느님과 교회와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세속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1546~1563년)에서 지위에 따라 신부는 검정색, 주교님은 진홍색, 추기경님은 적색, 교황님은 흰옷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황님 외에 분들은 대부분 검은색을 주로 입고 다니십니다. 봉사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수의壽衣”와 수단이 비슷한 어감과 느낌을 주기에, 수단을 입은 것은 세속에서 죽고 하느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모습입니다.

수단이 평상복이기는 하지만 일상 활동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입는 성직자 옷이 “끌러지 셔츠clergy shirts”입니다. 말 그대로 ‘성직자 싸쓰’입니다. 주로 신부님들이 외출할 때 입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를 포함한 많은 신부님들이 이 옷을 입고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끌러지 셔츠를 입고 다니다 보면 존경을 표하는 신자들도 만나지만, 호기심이나 괜한 심보로 어깃장을 놓는 사람도 만납니다. 전교 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 지역이기에 더욱 입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신부님들께서 검은 옷과 함께 세속에서 죽은 겸손의 은총을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배 주교님께 온 편지

기다림

이옥자 헬레나(산호동본당)

신부님! 가을의 끝자락을 보내면서 볼펜 꺾꺾 눌러 신부님께 손 편지 쓰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글은 주교님이 아니라 3~4년 전 교구 주보에 매주 지나간 일들을 스스럼없이 재미있게 쓰셨던 그때 신부님께 쓰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그냥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저는 지난달 미동부,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곳의 여행도 즐거웠지만 오래된 친구를 만나 많이 기뻐했습니다. 50년 전 독일 마인즈 대학병원에 함께 근무했던 친구를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와는 취미가 같아서 성당에도 함께 다니고 휴가를 받으면 음악회, 오페라도 보러 다녔고 카라얀이 지휘한 LP판도 사서 모았습니다. 고향이 그리우면 고향이 들어간 노래를 모두 부르며 향수를 달랬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고독과 낭만이 있었고 적당한 자유와 내가 노력해서 여행도 다니고, 물론 대한민국에 외화는 많이 보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푸르고 푸른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였습니다.

모든 인연의 끈은 그리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은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 속의 기다림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건지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수로 미국까지 가서 반세기 만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전혀 소식을 모르다가 남편 동창모임회를 통해 알았으니 기적이지요. 많이 그리워하면 만나게 되나 봅니다.

여행 끝나는 날 가이드가 배려해서 1시간을 아울렛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머리는 염색해서 흰머리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100% 할머니 모습으로 얼싸안았습니다. 어저께 헤어지고 만난 듯 마음의 거리감은 없었습니다. 켜켜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은 또 다른 추억을

남기며 책장을 넘깁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에서 죽으나 미국에서 죽으나 천국은 같으니 다음에는 천국서 만나자 하고 Auf wiedersehen 했습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들 사랑도 흐른다.”

신부님,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십자가 고상에서 예수님이 한심한 듯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모르겠느냐? 항상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한 주 지나면 12월, 대림절.

라디오에서 닥터 지바고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속절없이 또 흰 눈을 기다려봅니다.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제 주교님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저한테는 주교님보다 평범한 신부님으로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모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편지 보낼 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 삶의 좌우명

예원호 스테파노 • 수필가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삶의 목표인 좌우명座右銘이 필요하다.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학교마다 교훈이 있다. 회사에도 사훈이나 경영이념을 정해두고 목표를 향하여 진력한다.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집 가훈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정하고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고 마음에 새기도록 해 왔다. 이는 크고 위대한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분야 일지라도 가정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고 나라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것이 가장인 나의 바람이다.

내 삶의 좌우명은 성년이 되어 수유칠덕水有七德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 왔다. 이는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대의 등의 일곱을 노자의 도덕경인 물의 덕목을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노자老子는 인간 수양의 근본을 물이 가진 덕목德目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한다. 물의 높은 곳에서부터 더 낮은 곳으로 찾아 흐르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가다가 앞이 막히는 장애물에 닿으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를 배우고 어떠한 더러운 구정물도 받아주는 포용력도 배워야 한다.

담기는 그릇이 어떠한든 관계치 않고 받아들이

는 융통성을 배우며 어떤 장애물도 그것이 바위라 하더라도 뚫는 끈기와 인내를 배워야 한다. 때로는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도 배우고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배워야 한다.

인간이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물처럼 사는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였으니 선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물은 항상 보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결코 역류하지 않는다. 돌고 돌아서 부대끼고 품어야 언젠가는 더 너른 곳에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싶다.

상선약수란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자리로 흘러간다. 노자 사상에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세상에서 으뜸인 선의 표본으로 여기는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한다. 가끔은 꿈과 욕심을 혼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꿈을 찾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기도 한다. 오늘도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었는지 한 번쯤 뒤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도 가져야 하겠다.

◆ 교구청 직원 모집 ◆

미디어국에서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 집 : 임시직 1명(2019. 1. 2.~2020. 4. 29.)

특이사항 : 미디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제 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접 수 : 12. 20.(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우 51727)

문 의 : 사무처 055)249-7019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가톨릭 농민회 실무자 모집 ◆

모 집 : 물류팀 실무자

특이사항 : 1종 보통 운전 가능자, 40세 이하 남성분 우대

제 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 수 : 12. 20.(목)까지,

메일접수 kcfm055@hanmail.net

문 의 :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2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10주년 행사

일 시 : 12. 19.(수) 18:30

장 소 : 통영 해피데이

주 제 :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년!

대 상 : 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문 의 : 복지관 055)640-7700

교 구

■ 신학생 동계 피정

일 시 : 12. 17.(월)~19.(수) 2박 3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 명 : 이진희, 박재일(안드레아), 박계순

담당판사 :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 소 : 교구 법원

마 감 : 2019. 1. 10.(목)까지

문 의 : 법원 055)249-7111

■ 2019년 토래사도 양성연수

일 시 : 1과정 - 2019. 1. 4.(금) 14:30~

6.(주일) 15:30 1박 2일

2과정 - 2019. 3. 30.(토) 11:00

~31.(주일) 14:30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2019년도 학생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 각 본당 4명 이하)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따뜻한 옷, 비상약, 주일 봉헌금, 개인컵 등

참가비 : 1인 10만 원(1과정 6만 원, 2과정 4만 원)

신 청 : 12. 20.(목)까지 신청서, 참가비를 팩스발송 및 입금

문 의 : 청소년국 055)249-7051~3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 관 · 단 체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12월 기도 모임

일 시 : 12. 17.(월) 13:30~16:00

장 소 : 사파동성당(미사준비)

문 의 : 회장 010-9399-5454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안내

베트남 공동체 미사(베트남어)

일 시 : 매월 넷째 주 (토) 19:30

장 소 : 대건성당 교육관 2층

주 레 : 부반단(마르티노)신부

문 의 : 대건성당 사무실 055)644-3323

■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기 타

■ 나자렛예수수녀회 일일 피정

일 시 : 상시/ 장 소 : 수녀원 피정집

대 상 : 남녀 개인 또는 단체 20명 내외

문 의 : 피정 담당 010-4686-4903

■ 청년 성탄전례 피정

일 시 : 12. 24.(월) 16:00~25.(화) 1박 2일

장 소 : 툇정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 상 : 35세이하 청년/ 회 비 : 2만 원



라파엘여행사

◆ 이스라엘 9월 2/2 (375만원)

◆ 이스라엘 요르단 10월 3/13 (289만원)

◆ 나가사키 4월 2/27, 3/19 (94만 9천원)

◆ 다낭 5월 2/24, 3/10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주 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전 화 : 055)293-5605



서면역 9번 유원빌딩 1710호

성가정결혼

051)907-9525

김실비아 010-5514-3294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 청 : 055)391-120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문 의 : 010-8519-3431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12. 30.~2019. 1. 2./ 2019. 1. 11.~13./ 2019. 1. 16.~18./
2019. 1. 21.~24./ 2019. 1. 28.~30./ 2019. 2. 10.~12.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2019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접 수 : 2019. 1. 2.(수) 09:00~선착순 마감
대 상 : 초등부 5차, 중·고등부 2차
일 정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062)373-0942, 010-7412-0942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28회 겨울음악학교
일 시 : 2019. 1. 24.(목)~26.(토) 2박 3일
장 소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 제 : 화답송 창법 및 전례 특송곡
신 청 : 2019. 1. 17.(목)까지
문 의 : 051)517-8241, 2 www.bcmusic.or.kr

- 2019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 2019. 2. 13.(수)까지
(우편신청가능)
대 상 :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 용 :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문 의 : 02)745-8339
홈페이지 -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3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야마구치
주 관 : 가고시마교구/ 지도 : 송진욱 신부
문 의 : 담당자 010-3005-9028

지세포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지춘식(엘리아)
사목부회장(남성) : 김태운(베드로)
사목부회장(여성) : 고정효(아녜스)
총무분과장 : 김현달(요셉)
재경분과장 : 조영래(라파엘)
전례분과장 : 전선희(비비안나)
시설분과장 : 전귀만(마태오)
사회복지분과장 : 황수만(마태오)
복음화분과장 : 이승수(베드로)
청소년분과장 : 장병우(대건 안드레아)
지역분과장 : 이상애(루치아)
예구공소회장 : 오경식(사베리오)

사파동본당 2019년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문병수(베드로)
사목부회장(남성) : 정재억(도미니코)
노창섭(마태오)
사목부회장(여성) : 이경숙(마리아)
총무분과장 : 정재호(마르코)
재경분과장 : 송성열(율리아노)
전례분과장 : 이순늬(첼라인나)
선교분과장 : 주진희(안젤라)
교육분과장 : 정은숙(아녜스)
가정사목분과장 : 홍재숙(데레사)
홍보분과장 : 이상울(라파엘)
사회복지분과장 : 지선현(베로니카)
노인분과장 : 박영숙(아녜스)
지역분과장 : 박미정(율리안나)
청소년분과장 : 정승규(도미니코 사비오)
시설관리분과장 : 김정곤(바오로)

의령본당 2019년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최용원(요한)
사목부회장(남성) : 권영욱(타대오)
사목부회장(여성) : 정영숙(베로니카)
총무분과장 : 이택순(프란치스코)
기획분과장 : 오경주(라파엘라)
교육분과장 : 박선애(다니엘라)
전례분과장 : 정태준(베드로)
구역분과장 : 정설애(브리지타)
선교분과장 : 신영도(루카)
복지분과장 : 강봉두(프란치스코)
청소년분과장 : 송철구(레오)
가정분과장 : 옥근선(클라라)
시설분과장 : 황용환(하상 바오로)
신반공소회장 : 홍태식(비오)

완월동본당 제3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민창홍(요한)
사목부회장 : 옥성호(스테파노)
총무분과장 : 주기영(안드레아)
재경분과장 : 김종인(유티노)
복음화분과장 : 장미옥(마리아)
교육분과장 : 주진호(프란치스코)
전례분과장 : 이지영(아녜스)
지역분과장 : 임명숙(데레사)
사회복지분과장 : 최세경(요셉)
시설분과장 : 김명주(대건 안드레아)
청소년분과장 : 김재형(안드레아)
사업분과장 : 김진옥(크리스티나)
남성분과장 : 이성수(토마스)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레	문 의
교 구	12. 17.(월) 19:00	월남동성당	실로암(요한 9,6)	박상근(시몬, 수원교구)	최용진 신부(이나시오)	010-5072-5612
창원지구	12. 17.(월) 19:00	반 송 성 당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끄시는 성령	김완식(요셉, 선교사)	정중규 신부(클라로)	010-4553-7425
진주지구	12. 17.(월) 19:30	옥봉동성당	대림 시기를 잘 보내려면	이동진 신부(안셀모)	이동진 신부(안셀모)	010-9677-4224

품격 순례 **본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2월 19일 **이스라엘 오르단**
대한항공 11일 (399만원)
- 4월 7일 **터키 그리스**
대한항공 12일 (379만원)
※ 공동경비포함
본도여행사 ☎ 02)852-8525

새로운 눈이 열리는
통영예일안과
◆ 백내장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6층 수술센터 www.yeileyes.co.kr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csc.or.kr
055)541-0126 055)605-6297

가톨릭마산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 문 의 : 미디어국 055)249-7072

성탄이 왔다!

매번, 이맘때쯤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여러분에게 2018년은 어떤 해였나요?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곧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볼까요?

대림 성탄 길잡이

이 책은 대림과 성탄 시기에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과 자신의 체험, 영성을 토대로 진솔하게 주제를 풀어내면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탄 준비·대림 시기·주님 성탄 대축일·성탄 시기·새해·주님 공현 대축일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기에 따라 하나씩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 읊듯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묵상 시도 들어 있습니다.

소박한 성탄에 부르는 희망 노래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시기 위해 소박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래 모습이지요. 성탄은 시끌벅적한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듯, 성탄절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을 기리고 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담겨있는 ‘인류 구원’이라는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또 맞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안드레아 슈바르츠 지음 | 황미하 옮김 |

234쪽 | 바오로딸 |

구입 문의 : 교구청 내 성바오로서원 055)248-3089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www.pauline.or.kr | facebook.com/fspcorea

카카오 스토리채널 story.kakao.com/ch/pauline

통신판매 02)944-0944~5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세상, 모든 게 정신없이 휩쓸려 가는 세상에서 ‘기다림’이란 어쩌면 세태에 뒤쳐진,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우리에게서 기다림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할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선물을 준비하느라, 혹은 모임이나 약속으로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닌지요? 황금과 유향, 몰약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좋고 멋진 선물만 받지 않으십니다. 슬픔, 불안, 어둡고 무거운 마음도 받으십니다.

이 책과 함께 성탄의 참된 의미와 신비를 묵상하면서, 더 기쁘게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서 어둠을 거두지 않으시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오로딸 편집부